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22년 제 30주차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7.18.~7.24.)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 전 세계 주간 발생 및 사망 최근 2주 유지
- 전 세계 누적 발생
 - 누적 발생 5억 6731만명, 누적 사망 637만명

원숭이두창

-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73개국에서 확진 및 의심사례 발생(7.28 기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7.21)

선페스트

- (중국) '22년 7월, 내몽골에서 환자 1명 발생

폴리오

- (미국) '22년 6월 폴리오 백신을 미접종한 환자 1명 발생

출처: WHO, ECDC, 각국 보건부, 언론보도 등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목 차

□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1. 코로나19 1
2. 감염병 발생뉴스 2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1.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30주 5
2.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 운영 안내 6
3. 50대 4차접종 안내문.....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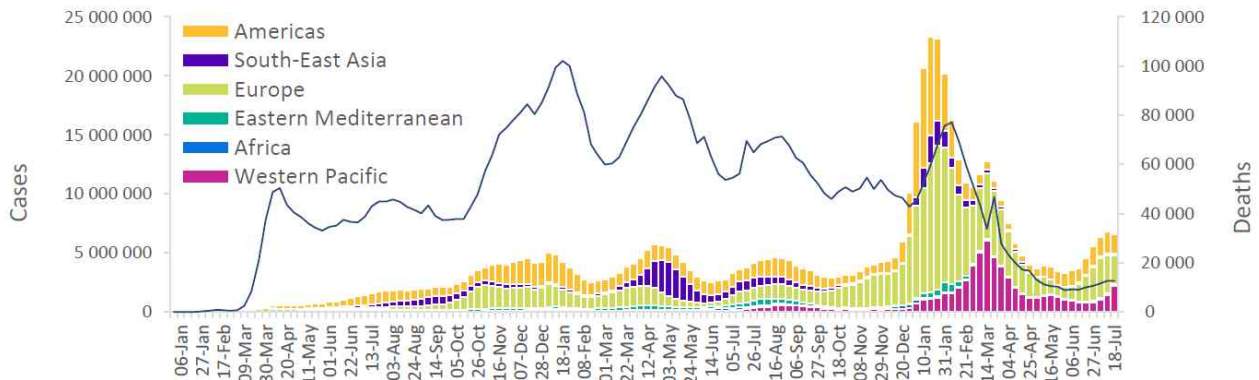


코로나19

전 세계 발생 및 사망 최근 2주 유지

발생현황 전 세계 총 567,312,625명(사망 6,378,748명) 발생 보고(7.24일 기준)

- 지난 1주 간(7.18.~7.24.) 신규 확진자 6,607,653명(-3%), 사망 12,689명(0%) 발생



<WHO 지역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7.24일 기준)>

- 최근 1주간(7.11~7.17일) 신규 확진자 6,607,653명, 사망자 12,689명 발생, 확진자 및 사망자는 전 주와 유사한 규모로 발생
 - **(확진)** 서태평양(2,180,412명, +52%), 중동(177,722명, +45%), 동남아(196,613명, +13%) 순으로 주간 확진자 증가, 일부 지역* 감소
 - * 아프리카(10,882명, -44%), 유럽(2,418,103명, -24%), 아메리카(1,623,921명, -12%)
 - **(사망)** 중동(432명, +88%), 서태평양(1,628명, +19%), 동남아(582명, +8%) 순으로 주간 사망자 증가, 일부 지역* 감소
 - * 아프리카(55명, -47%), 유럽(4,235명, -6%), 아메리카(5,757명, -2%)
-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본(969,068명, +73%), 미국(860,097명, -3%), 독일(565,518명, -16%), 이탈리아(531,327명, -26%), 프랑스(508,620명, -27%) 순으로 높게 발생

※ (자료 출처) : WHO

분석 및 평가

- 전세계 주간 발생 및 사망이 최근 2주 유지한 가운데 서태평양,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의 발생이 증가, 사망자 수는 중동, 서태평양,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
- 새로운 변이 확산 등 발생 양상 변화 모니터링 지속 예정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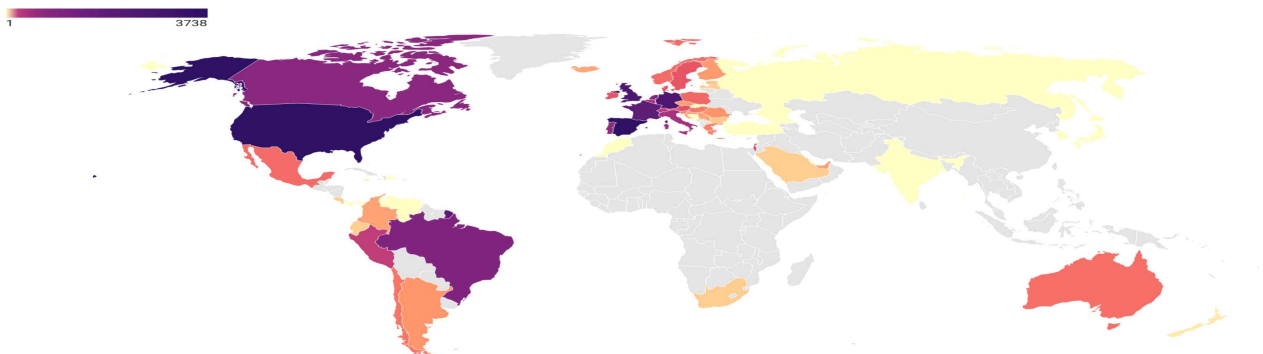
감염병 발생 뉴스

기타 [원숭이두창/영국, 포르투갈, 미국 등] 73개국에서 확진 및 의심 환자 발생

▣ (발생현황)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 73개국에서 확진 19,607명, 의심 41명 발생(7.28 기준)

- '22년 5월 이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인 중앙·서아프리카와 관련없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미국 등 73개국에서 발생(확진사례 19,607명, 의심사례 41명) (7.28 기준, 존스홉킨스)
- 스페인(3,738명), 미국(3,686명), 독일(2,459명), 영국(2,438명), 프랑스(1,831명) 순으로 누적 다발생,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 국적의 30대 1명 6.22일 원숭이두창 확진되어 위기경보 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대응 중
- WHO는 원숭이두창 주간 발생 상황('22.7.22)에서 28주(7.11~7.17) 2,740명에 비해 29주차(7.18~7.24) 4,045명으로 47.6% 증가, 지난 4주간 보고된 발생의 대부분이 유럽지역(72%)과 미주지역(25.8%)에서 발생,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8.9%(10,267명/10,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 연령은 36세, 성적지향이 확인된 3664명 중 3591명(98%)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원숭이두창 감염 경로가 조사된 2,954명 중 성적 접촉이 2,691명(91.1%)으로 확인, 확진자들의 증상은 발진이 6,048명(88.7%)으로 가장 많았고, 전신발진 4828명(70.8%), 발열 3072명(45%), 성기부위 발진 2266명(32.%) 순으로 많았음
- WHO는 제2차 원숭이두창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다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유행상황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함. WHO는 원숭이두창 관련 첫 번째 긴급위원회('22.6.23)와 위험도 평가는 동일하게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는 '중간', 유럽은 '높음'으로 평가

※ (자료 출처) : WHO, ECDC, CDC, 존스홉킨스, EMA,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6.22)



Copyright by KDCA Division of Risk Assessment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존스홉킨스, 5.6~7.28>



법정

[선페스트/중국] '22년 7월 내몽골 지역에서 환자 1명 발생**☞ (발생현황) '22년 7월 내몽골에서 40대 남성 1명 선페스트 확진**

- 환자는 내몽골 지역의 목장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으로 7월 12일부터 발열, 피로, 의식불명, 설사 등의 증상으로 지역 병원에 입원함. 증상이 악화되며, 7월 14일 전원하였고, 7월 19일 선페스트(Bubonic plague) 확진
- 중국 보건당국은 가족에 대한 격리검사를 실시하였고, 환자의 거주지 및 이동 동선의 소독을 실시함.
- 페스트는 몽골지역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지난 4년 동안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총 11건의 페스트 환자가 발생함.
- 페스트는 선페스트, 폐페스트, 패혈증페스트로 나뉘며 페스트균에 감염된 설치류 또는 감염된 환자가 배출하는 화농성 분비물(림프절 고름 등)에 직접 접촉하거나 폐페스트 환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됨.
- '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페루, 중국, 미국에서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자료 출처) : ProMED



법정

[폴리오/미국] 뉴욕주에서 '22년 6월 폴리오백신 미접종 환자 1명 발생**☐ (발생현황) 뉴욕주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폴리오 환자 1명 발생**

- 환자는 뉴욕주 로클랜드시(Rockland county)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22년 6월 20일 호흡기 증상 및 양 하지의 급성 마비로 6월 21일 병원에 입원함. 6월 28일 대변검체에서 백신유래 폴리오바이러스 2형이 검출되었으며, '22년 3월 폴란드와 헝가리 이외에는 국외 여행력 없음, 환자는 폴리오 백신 접종을 미실시하였으며, 폴리오 바이러스에 노출된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 중
- 환자는 현재 집으로 퇴원하였으며, 발병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한 양 하지의 마비 증상 존재, 다른 가족들은 현재까지 특이사항 보고없음
- 환자가 거주하는 로클랜드시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음.
- 미국에서는 2013년 인도에서 경구용 폴리오 백신(OPV) 접종 후 사망한 사례, 2005년 미네소타에서 면역 저하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대변에서 백신유래 폴리오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미네소타의 아동의 경우 2달 전 외국에서 경구용폴리오백신을 접종한 사람과의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7명의 백신 미접종 아동에게 백신유래 폴리오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나 마비증상은 없었음.
- 미국에서는 1979년 폴리오 퇴치 선언 후, 2000년도부터는 경구용폴리오백신(OPV)으로 인한 백신 관련 마비성 폴리오 발생의 위험성을 없애기위해 불활성화 폴리오 백신(IPV)을 사용하고 있음
- 보건당국은 환자거주지 지역의 폐수에서 폴리오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주 주민들의 백신접종을 위해 접종시설을 확보하고, 폴리오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역사회의 주민 대상으로 예방접종 캠페인(IPV 1회분 접종)을 실시함
- WHO는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과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 및 도시의 전체적인 위험도는 중간, 그러나 과거부터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위험도 '높음'으로 평가

※ (자료 출처) : WHO IHR, ProMED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2022년 30주, 2022. 7. 23. 기준)

단위: (보고) 환자 수†

질병분류†	금주	2022년 (누계)	5년 (주 평균)	연도별 환자 수					금주유입환자 : 유입국 (건수)
				2021	2020	2019	2018	2017	
제2급 감염병									
결핵	359	9,905	465	18,335	19,933	23,821	26,433	28,161	
수두	249	10,299	1,085	20,929	31,430	82,868	96,467	80,092	
홍역	0	0	0	0	6	194	15	7	
콜레라	0	0	0	0	0	1	2	5	
장티푸스	0	20	2	61	39	94	213	128	
파라티푸스	11	30	1	29	58	55	47	73	
세균성이질	0	19	2	18	29	151	191	11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7	115	7	165	270	146	121	138	
A형간염	15	1,295	185	6,583	3,989	17,598	2,437	4,419	
백일해	0	22	12	21	123	496	980	318	
유행성이하선염	83	3,735	262	9,708	9,922	15,967	19,237	16,924	
풍진	0	0	0	0	0	8	0	7	
수막구균 감염증	0	0	0	2	5	16	14	17	
폐렴구균 감염증	4	199	5	269	345	526	670	523	
한센병	0	1	0	5	3	4			
성홍열	5	258	140	678	2,300	7,562	15,77	22,838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0	1	0	2	9	3	0	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459	15,383	334	23,311	18,113	15,369	11,954	5,717	
E형간염	6	289	8	494	191	-	-	-	
제3급 감염병									
파상풍	0	11	1	21	30	31	31	34	
B형간염	6	250	9	453	382	389	392	391	
일본뇌염	0	0	0	23	7	34	17	9	
C형간염	91	4,957	217	10,115	11,849	9,810	10,811	6,396	
말라리아	7	174	25	294	385	559	576	515	
레지오넬라증	8	169	8	383	368	501	305	198	
비브리오패혈증	0	5	2	52	70	42	47	46	
발진열	0	22	0	9	1	14	16	18	
쯔쯔가무시증	16	566	29	5,915	4,479	4,005	6,668	10,528	
렙토스피라증	9	58	3	144	114	138	118	103	
브루셀라증	1	4	0	4	8	1	5	6	
신증후군출혈열	2	96	6	310	270	399	433	53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4	405	16	773	818	1,006	989	1,008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0	13	2	67	64	53	53	36	
댕기열	0	13	3	3	43	273	159	171	
큐열	2	33	3	46	69	162	163	96	
라임병	0	2	1	8	18	23	23	31	
유비저	0	0	0	2	1	8	2	2	
치쿤구니아열	0	2	0	0	1	16	3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0	58	9	172	243	223	259	272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1	3	3	11	

🔍 의료감염관련 자율보고 체계 관련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은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란? 의료기관내 의료행위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인지한 누구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 집단사례(의심)일 경우 역학조사 실시

2 보고대상: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관련감염 중 비법정 감염사례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경우
 -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예: 코로나19)
 -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경우
- * 각 감염병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의 신고 및 보고 절차에 따름

3 보고자: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4 보고방법: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접속 후 하단 고정배너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통해 보고

※ 전산접속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소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팩스 또는 메일로 보고
작성서식 안내: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알림·자료→공지사항→검색어: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서식 안내→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용/ 환자(보호자)용 중 선택하여 작성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권역별 팩스, 대표메일

권역 구분		팩스	대표 메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 -361-5722	capitalkdca@korea.kr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229-1525	hai229@korea.kr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062-221-4133	hrcdc@korea.kr
	(제주)	064-749-9980	jejurcdc@korea.kr
경북권 (대구, 경북)		053-550-0605	kbkdca@korea.kr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051-260-3704	gyeongnamrcdc@korea.kr



50대 4차접종 안내문

2022.07.25.

 질병관리청

“

**50대 연령층도
4차접종이 필요한가요?**

”





2022.07.25.



질병관리청

전주대비('22.7.22. 00시 기준)
약 6.8만명 확진자 발생, 76.5%↑
31명 사망자 발생, 93.7%↑
130명 위중증 발생, 100%↑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신규변이의 특성, 면역력 감소 등으로
재유행이 우려되는 방역상황





2022.07.25.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50대까지 확대



50대 연령층이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



2022.07.25.



질병관리청

접종 확대 근거 ① 기저질환 비율이 높음

50대 연령층은 당뇨병, 뇌졸중, 심부전 등에서
60대와 유사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이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구분	당뇨병	뇌졸중	심부전
60-69세	31.6 %	28.5 %	19.8 %
50-59세	25.6 %	23.5 %	11.0 %
40-49세	11.4 %	10.5 %	4.8 %
30-39세	3.6 %	3.1 %	1.8 %
20-29세	1.0 %	1.0 %	0.5 %



2022.07.25.



질병관리청

접종 확대 근거 ② 누적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높음

50대 누적 중증화율은 0.14%로
40대 누적 중증율에 비해, 약 3배 많음
50대 누적 치명률은 0.04%로
40대 누적 치명률에 비해, 약 4배 많음





2022.07.25.



질병관리청

접종 확대 근거 ③ 대다수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

3차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된 50대는 676.6만 명*으로,
50대 3차접종자(703.6만 명)의 96.2%에 육박

*7.11. 기준

4개월 경과





2022.07.25.



질병관리청

#_해외에서도 이미 시행 중 이고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4차접종 실시 중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고령층 입원환자 증가로 50세 이상에 대해 4차접종을 권고(5.19.)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을 권고(7.8.)



기존 7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성인과 5~49세 임상 위험군 등으로 권고 대상을 확대(7.15.)



2022.07.25.



질병관리청

#_효과성을 입증한

3차접종 대비

20.3%



감염예방효과

50.6%



중증예방효과

53.3%



사망예방효과



2022.07.25.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

